

조선족 소설의 연구 방향

최 병 우*

차 례

- | | |
|-------------------|------------------------------|
| I. 문제의 제기 | III. 조선족 소설 연구에 대한 반성과
전망 |
| II. 조선족 소설의 연구 경향 | IV. 마무리 |

국문초록

본고는 한중수교 이후 한국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조선족 소설에 대한 연구를 사적으로 검토하고 그 성과와 한계와 함께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선족 소설에 대한 연구는 한중수교 이후 2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상당한 연구 성과를 누적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를 초기의 조선족 소설의 소개 단계와 조선족 소설의 특성을 살피는 연구 그리고 개별 작가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그간의 성과를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족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저서들을 소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족 소설 연구에 대한 반성과 함께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전망을 시도하였다. 조선족 소설 연구는 그간의 몇 작가에 대한

* 강릉원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연구에서 벗어나 연구 대상 작가와 작품을 다양화하여야 하고, 그간 주 연구 주제였던 민족정체성의 문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중국 현대사와 문학사와 관련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형식미학적인 접근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이 논문의 정리와 제언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조선족 소설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고 다변화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조선족 소설, 한중수교, 이중정체성, 디아스포라, 중국문학사, 형식미학

I. 문제의 제기

일제강점기에 생존을 위하여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해방 후 귀국하지 않은 재일교포나 해방 이후 세계 각지로 이산해 간 재미교포를 비롯한 세계 각 지역의 재외한인들에 대해서는 재외동포로서 그 존재를 알고 있었고, 또 어느 정도 관심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만주 지역으로 이주하였다가 해방 이후 귀국을 포기하고 그곳에 정착한 조선족이나, 같은 시기 연해주 지역으로 건너갔다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은 그들이 사회주의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 영역 밖에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조선족들은 한국전쟁의 직접 교전국인 중국의 공민 신분이었고,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으로 참전하기도 하였기에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였다.

그러나 1990년을 전후하여 그 존재를 알게 된 조선족들은 한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의 관심을 모으게 된다. 더욱이 한중수교와 함께 본격화되기 시작한 한국과 중국의 교역 과정에서 민족어를 유지하고 있는 200만 명에 가까운 조선족의 존

재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인적 자원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또 조선족들이 경제적으로 발전한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입국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인적 접촉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족과의 인적 교류가 확대되자 많은 한국인들이 연변 지역을 방문하여 그들의 문화를 접하면서 조선족들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 민족의 전통을 유지하였고, 그들의 삶을 음악, 미술, 문학 등 예술 작품으로 형상화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 속에 한국어로 문학 작품을 쓰고 문학 생활을 하는 소수민족이 조선족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한국 문인들과 문학 연구자에게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온다. 그들은 연변 조선족자치주로 또 기타 동북지방의 조선족 산재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 조선족 문인들과 만나고 그들의 작품을 확인하고 한국에 소개하고 또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한국문학과는 전혀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발전해 온 조선족 문학은 한글로 된 문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마련하게 해주었고, 나아가 재일동포 문학이나 고려인 문학 그리고 재미동포 문학과 같은 재외한인들의 문학을 하나의 연구 단위로 생각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해 주었다.

한중수교가 체결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 조선족의 존재가 알려지고 그들의 문학이 소개되고 논의가 이루어진지 이미 20년이 훨씬 넘었고 그들의 문학에 대한 연구 업적도 상당히 많이 축적되었다. 이제 그간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반성함으로써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점검하여 조선족 소설에 대한 연구의 폭과 깊이를 더하고 조선족 문학 나아가 한민족 문학 연구를 위한 틀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에게 소개되어 연구의 대상으로 떠오른 조선족의 문학 중 소설에 한정하여 그간 한국에서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가를 시기 별로 몇 단계로 나누어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족 소설에 관한 연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조선족 소설의 연구 경향

1. 조선족 소설의 소개

한중수교 이전부터 중국과의 교류가 진행되면서 조선족의 존재를 알게 된 문학인들은 조선족 소설을 한국에 소개하는 작업이 시작한다. 특히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중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의 존재가 알려지고 그들이 한국어로 창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조선족의 문학작품이 한국에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올림픽이 있기 전 해인 1987년 연변조선족의 소설을 모아 편집한 <그녀는 고향에 다녀왔다>가 슬기에서 출간되어 조선족 소설의 편모를 알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일제 강점기 치열했던 항일투쟁의 역사를 우리와는 다른 관점과 방법으로 소설화한 김학철의 장편소설 <격정시대>, <해란강아 말하라> 등과 단편소설집 <무명소졸> 등이 풀빛에서, 조선인들의 만주 이주와 정착 과정 그리고 항일투쟁의 역사를 소설화한 리근전의 <고난의 년대>가 세대에서 1988년에 한꺼번에 발간되자 중국조선족 소설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외교적 단절로 중국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던 당시로서는 공산주의 국가 중국이라는 이질적인 공간에서 한글로 작품을 창작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조선족 소설들이 출간되면서 조선족 문학을 소개하는 글들이 작품집에 해설의 형태로 실리고, 조선족 문학을 소개하는 글이 신문이나 잡지 등에 발표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에서 조선족들에 의해 집필된 조선족 문학의 역사와 특징을 정리한 책들이 소개되기도 한다. 조선족 학계에서 최초로 조선족 문학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편찬한 권철과 조성일 등의 《중국조선족문학사》(연변인민출판사, 1990.)는 조선족 사회에

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조선족 문학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또 이 시기에 권철, 박충록 등 조선족 문학연구자들의 평문들이 소개되어 조선족 문학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한국에서 가장 먼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은 조선족 작가는 일제강점기에 중국에서 항일무장투쟁을 하다 부상으로 일본군에 체포되어 김옥 생활을 하고, 해방공간에 입국하여 남한에서 작가로 활동하다가, 북한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가 연변에서 전업작가 생활을 한 김학철이다. 1987년 그의 대표작들이 출간되어 독자들에게 소개되자 김윤식은 「빨치산 문학의 기원」(『실천문학』, 1988.12.)이라는 평문을 발표하여 김학철 문학의 의의와 가치를 언급하였다. 이후 김학철 문학은 여러 연구지들에 의해 연구되어 항일문학의 중요한 한 전통으로 평가받기에 이르고 이후 조선족 작가 중 가장 주목을 받는 작가로 자리하게 된다.

1991년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는 연변 조선족 문학에 대해 특집을 기획하여 『한국학연구』 3집에 수록한다. 이 특집에서는 연변대학 권철 교수의 「당대문학 40년의 발자취」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40년간의 조선족 문학을 일별하고, 이기서 교수의 「연변 조선족의 시문학」, 송하춘 교수의 「연변소설개관」, 서연호 교수의 「연변지역 희곡 연구의 예비적 검토」, 서종택 교수의 「연변 조선족의 문예비평」 등을 통해 조선족 문학을 장르별로 비교적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소개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특집은 연변 조선족 문학이라는 용어 사용에서 보듯이 아직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과 그들의 문학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상당히 부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한용은 「역사적 주체로서의 인식과 실천, - 이근전의 <고난의 년대>」(『동서문학』, 1990.1.)를 발표하여 이근전 소설이 만주에서의 정착 과정과 항일 투쟁의 과정을 다루는 방식을 통하여 조선족 소설만이 갖는 역사인식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고난의 연대>가 발표된 당시의 이근전 소설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은 김학철 소설

의 그것에 비해 매우 부족하여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오랜 기간동안 연구자들의 관심밖에 놓이게 된다. 이는 조선족들 사이에서 김학철에 비해 이근전에 대한 관심이 아주 빈약한 것과 일정한 관련을 보인다.

아직 조선족들과의 접촉이 부족하던 시기에 한국에서 간행된 소설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시기의 연구는 작품의 소개 수준을 넘지 못하였다. 이처럼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조선족 소설에 대한 소개는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특히 이 시기에는 중국에서 유학 온 조선족 학자들에 의해 조선족 소설에 대한 다양한 연구 성과가 발표되어 한국의 연구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2. 조선족 소설의 특성 연구

조선족과의 접촉이 시작된 직후, 조선족 소설에 대한 소개와 개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면서 점차 조선족 소설이 지닌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해방 이후 한국과 동떨어져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살아 오면서도 한민족의 언어와 문화 전통을 유지해 온 조선족 문학이 한국 문학에 대해 갖는 이질적인 성격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기에 충분하였다.

한중수교 이후부터 조선족 문학에 관심을 보인 김종하는 「중국 조선족 소설사 기술태도에 나타난 소설의 기능 문제」(『한국문학논총』 16, 1995.12.)와 「중국 사회주의 문화정책이 조선족 소설창작 방법에 미친 영향」(『한국문학논총』 20, 1997.6.) 등을 통하여 조선족 소설이 지닌 특성을 구명한 바 있다. <<중국조선족문학사>>를 통하여 조선족들이 가지고 있는 소설의 기능에 관한 인식의 틀을 점검해 본 전자 논문이나, 중국의 사회주의 문화 및 문학 정책이 조선족 소설 창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밝힌 후자의 논문은 조선족 소설에 내재한 문학적 특성을 밝히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 일정한 의의를 지닌다. 이들 논문은 조선족

의 사회역사적 조건과 구체적인 작품 분석에서 결론을 이끌어내기보다는 조선족들의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결론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지나 이후 조선족 소설의 연구에서 연구 방향을 설정해 주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지닌다.

정덕준은 「개혁개방 시기 재중 조선족 소설 연구」(『한국언어문학』 51, 2003.12.)를 통해 개혁개방과 함께 조선족 소설에 붙어 닳친 변화의 모습과 그 특징을 중국현대소설사와 관련지어 고구한 바 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전의 조선족 소설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현실에서 해당 시기에 발표된 몇 작품을 대상으로 결론을 이끌어낸 이 논문은 조선족 소설에 대한 소개의 의미를 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비슷한 시기에 조선족 학자인 오상순은 「20세기 말 조선족 소설에 나타난 비극성」(『현대문학의 연구』 24, 2004.11.)을 통해 중국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중국당대문학사의 흐름과 함께 전변해 간 조선족 소설이 어떠한 비극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를 보여주었으며, 「이중정체성의 갈등과 문학적 형상화」(『현대문학의 연구』 29, 2006.7.)에서 조선족들이 느끼고 있는 중국 공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수민족인 조선족 즉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갈등이 조선족 소설에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가를 논리화하였다. 이 논문은 이후 조선족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이 된 이중정체성¹⁾의 문제를 다루어 이후 한국이나 중국의 문학연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또 중국문학 연구자인 정지인은 「당대 조선족 소설에 나타난 한민족 의식」(『중국현대문학연구』 13, 2004.12.)을 통해 오상순과는 조금 다른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조선족 소설에 타나나는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갖는 한계를 짚어 보기도 하였다.

오상순의 연구 이후 조선족 소설에 대한 연구는 조선족 소설에 나타

1) 한민족이라는 민족 정체성과 중국공인이라는 국민 정체성을 동시에 갖는 이중정체성의 문제는 거대한 다민족 국가 중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조선족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 문제는 정판통 이후 조선족의 문화적 특성을 말하는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다.

난 이중정체성의 문제와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조선족 소설을 디아스포라 개념으로 살피는 방향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고인환은 「중국 조선족 디아스포라 문학의 한 가능성」(『한국문학논총』 55, 2010. 8.)에서 김학철의 <20세기의 신화>에 나타난 디아스포라된 인간의 모습을 짚어 그 소설적 가능성을 짚었으며, 박경주와 손창주는 「1990년대 이후 조선족 소설에 반영된 민족정체성 연구」(『한중인문학연구』 31, 2010. 12.)에서 여러 한중수교 이후의 조선족 소설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민족정체성의 문제를 다루었다. 소설이 해당 공동체에 살아가는 동시대인들이 가진 문제의식을 문제 삼는 것이라면 한국과의 교류 이후 조선족들이 경험하게 된 이중정체성의 문제와 모국을 떠났다는 디아스포라적 상상력은 이들 문학을 바라보는 데 있어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최병우는 「한중수교가 중국조선족 소설에 미친 영향 연구」(『국어국문학』 151, 2009.5.)에서 중국 소수민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조선족이 한중수교로 경제적으로 앞선 한국과 직접 소통하면서 그 삶에 어떤 변화가 오고, 소설은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변화된 시대에 맞추어 작가들의 창작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등을 살핀 바 있다. 또 아주대학교 송현호 교수를 비롯한 중국조선족 문학에 나타난 탈식민주의적 성격을 살핀 프로젝트 팀은 조선족 소설이 지닌 탈식민주의적 성격을 구명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연구 결과는 《중국 조선족 문학의 탈식민주의 연구 I》(국학자료원, 2008.)과 《중국 조선족 문학의 탈식민주의 연구 II》(국학자료원, 2009.)로 집약되었다. 이 책에는 김학철의 소설이 지니는 탈식민주의적 성격과 리근진의 소설과 조선족 역사소설이 갖는 탈식민주의적 성향 그리고 몇몇 작가와 시인들의 작품들이 연구되어 조선족 소설이 갖는 탈식민주의적 성격을 다양한 각도에서 해명하고 있다.

3. 개별 작가 연구에 대한 관심

조선족 소설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일반적인 특성들이 연구되면서 점차 개별 작가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조선족 작가들 중에서 연구자들의 조명을 가장 많이 받은 작가는 김학철이다. 조선족과의 접촉 초기에 김윤식에 의해 김학철의 소설이 소개되고 그 의미가 해명된 이후 많은 평론가들이 김학철의 소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고, 김관웅, 김호웅, 이상렬, 이해영, 강옥 등 많은 조선족 연구자이 김학철 소설을 고찰한 논문들이 여러 학술지에 발표되었다.

김학철 소설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들은 1990년대 후반에 오면서 본격화된다. 이상갑은 「역사 증언에의 욕구와 형상화 수준」(고려대 한국학연구원, 『한국학연구』 10집, 1998.12.)에서 그간 김학철 소설의 중요한 특성으로 지적되었던 일제강점기 중국에서의 항일 체험의 문제를 김학철 문학 세계의 바탕이 되는 역사 증언에의 욕구로 정의하고 그것이 작품 속에 얼마나 잘 형상화되고 있는가를 설명한 바 있다. 고명철은 「혁명성장소설의 공간, 민중적 국제연대 그리고 반식민주의」(『반교어문연구』 22집, 2007.2.)에서 그간 혁명적 낭만성이라든가 항일 혁명가로서의 성장등과 같은 김학철의 문학적 특징을 설명하던 개념을 벗어나 김학철의 소설 <걱정시대>를 유소년이 혁명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담은 점에 착안하여 부르조아적 성장소설과 구분되는 혁명성장소설로 규정하고 그 특징으로 당시 조선의용대가 가졌던 민중적 국제연대와 반식민주의적 특성을 규명하였다. 또 송현호는 김학철의 작품들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를 한 바 있다. 그는 「김학철의 <걱정시대>에 나타난 탈식민주의적 성격 연구」(『한중인문학연구』 18, 2006.8.), 「김학철의 <해란강아 말하라> 연구」(『한중인문학연구』 20, 2007.4.), 「김학철의 <20세기의 신화> 연구」(『한중인문학연구』 21, 2007.8.) 등에서 김학철의 대표적인 작품들이 지니는 주제적 특성을 밝히고 소수민족 작가로서 자민족의 문화를 유지하며 식민주의적 한계에서 벗어나려는 김학철의 치열한 작가의식을 해

명하고 있다.

김학철과 함께 초기 조선족 작가를 대표하는 인물인 리근전에 대한 연구는 김학철에 비해서는 상당히 소루하다. 우한용의 언급 이후에 발표된 리근전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로는 오양호와 임향란의 「중국조선족 소설에 나타난 고향의식 - 리근전의 <고난의 년대>를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1, 2004.10.)가 있다. <고난의 년대>를 통하여 조선족 소설에 나타난 고향의식을 일세대의 동심원적 인식과 이세대의 이심원적 인식으로 구분한 것은 조선족에게 고향의식이 한국을 떠나온 일세대들에게는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하나밖에 없는 고향이지만 이세대들에게는 조상의 고향 한국과 나의 고향 중국이 공존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조선족들의 이중정체성을 고향이라는 개념으로 보다 선명하게 보여준다. 리근전의 작품은 최병우에 의해 그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최병우는 「리근전소설연구」(『현대소설연구』 29, 2006.3.)에서 <고난의 년대>, <범바위>를 비롯하여 그의 많은 단편소설과 평문들을 포함한 거의 전작품의 의미를 해명하여 리근전 소설의 전모를 살핀 후, 그의 소설 대하여 작품의 수개 양상 연구, 한국소설과의 비교 연구 등 다각도로 연구를 진행하여 단행본 《리근전 소설 연구》(푸른사상, 2007.)를 발간한 바 있다.

김학철과 리근전을 제외하고 한국 연구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조선족 작가는 허련순이다. 한국문단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하여 많은 작품을 한국에서 출간한 허련순의 작품들 중에서 <바람꽃>과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 등은 이들 한중수교 이후 조선족들의 변화된 삶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작품이 지니고 있는 디아스포라적 특성에 대해 여러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졌다. 허련순의 소설에 대해서는 최병우가 「조선족 소설에 나타난 민족의 문제」(『현대소설연구』 42, 2009.12.)에서 중국의 민족 정책을 살펴 조선족의 입장을 정리하고 조선족의 국민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을 해명하기 위해 <바람꽃>을 그 대상 작품으로 다룬 바 있다. 조선족 연구자인 한홍화는 「<바람꽃>을 통해

본 조선족 정체성의 변이 양상(『한국민족문화』 38, 2010.11.)에서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었고, 차성연은 「중국조선족 문학에 재현된 ‘한국’과 ‘디아스포라’ 정체성(『한중인문학연구』 31, 2010.12.)에서 <바람꽃>과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는가>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의 문제를 다루었다. 또 송현호는 「중국 조선족 이주민 3세들의 삶의 풍경(『현대소설연구』 46, 2011.4.)에서는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는가>에 나타나는 조선족의 비극을 이주민 3세들이 겪는 삶의 모습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한 바 있다. 조선족 연구자인 이광재와 지해연도 「조선족 농촌여성의 실존적 특징(『한중인문학연구』 32, 2011.4.)에서 허련순의 소설을 다루면서 조선족의 정체성 문제나 디아스포라에서 벗어나 이 작품을 조선족 농촌여성이라는 존재적인 조건이 한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 가는 당대 중국의 현실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치밀한 분석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최병우의 「우광훈 초기 소설의 주제 특성 연구(『한중인문학연구』 22, 2007.12.), 박지혜의 「윤림호 소설의 민족의식 표출양상과 의미(『현대소설연구』 33, 2007.3.), 송현호의 「최홍일의 <눈물 젖은 두만강>의 서사적 특징(『현대소설연구』 39, 2008.12.) 등에서 위에 정리된 세 작가 이외의 작가들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김학철, 리근전, 허련순 세 작가를 제외한 작가연구나 작가작품에 대한 연구는 아직은 작가 별로 한두 편 정도에 지나지 않아 소개의 단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4. 조선족 학자들의 연구 업적

한국 내에서도 조선족 작가들에 대한 연구는 조선족 연구자들에 의한 논문이 그 중심을 이룬다. 이들이 발표한 논문은 위에 제시된 몇 개의 논문 외에도 엄청난 양을 보인다. 개별 논문이나 석사학위 논문 등에 대한 언급은 그 분량 때문에 생략하고 현재까지 한국에서 발간된 조선족 연구자들의 조선족 소설에 대한 연구서만 간단히 제시하기로 한다.

- 박충록, 《김학철 문학 연구》(이회, 1996.)
오상순, 《개혁개방과 중국조선족 소설문학》(월인, 2001.)
이광일, 《해방 후 조선족 소설문학 연구》(경인문화사, 2003.)
이종순, 《중국조선족 문학과 문학교육》(신성출판사, 2005.)
이해영, 《중국조선족 사회사와 장편소설》(역락, 2006.)
이해영, 《청년 김학철과 그의 시대》(역락, 2006.)
임향란, 《조선족문학에 나타난 삶의 현장과 의식 변화》(한국학술정보, 2008.)
강옥, 《김학철 문학 연구》(국학자료원, 2010.)

이외에도 연변에서 발간되고 있기는 하지만 김학철에 관한 연구는 그 양이 엄청나다. 김학철의 아들인 김해양이 중심이 된 김학철문학연구회에서 김학철에 관한 연구 결과를 모아 600-700면 정도씩 편찬하는 연구서가 2009년까지 여섯 권이나 발간되었다. 참고로 아래 소개한다.

- 김학철문학연구회, 《조선의용군 최후의 분대장 김학철》(연변인민출판사, 2002.)
김학철문학연구회, 《조선의용군 최후의 분대장 김학철 2》(연변인민출판사, 2005.)
김학철문학연구회, 《김학철론·젊은 세대의 시각》(연변인민출판사, 2006.)
김학철문학연구회, 《조선의용군 최후의 분대장 김학철 4》(연변인민출판사, 2007.)
김관웅·김호웅, 《김학철 문학과 의 대화》(연변인민출판사, 2009.)
김학철문학연구회, 《소장과평론가와 김학철의 만남》(연변인민출판사, 2009.)

조선족 연구자들의 연구는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대상이나 연구 시각에서 한국 연구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조선족 연구자들의 연구가 주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조선족 연구자들의 연구는 내부적 시각에서의 연구여서 한국 연구자들의 연구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 한국 연구자들로서는 상당 부분 조선족 연구자들의 연구에 도움을 받는 바 있지만 그들과는 다른 각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조선족 연구자들이 중국의 정책의 한계라는 외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비해 한국 연구자들은 이러한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한 측면으로는 한국 연구자들의 연구가 조선족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시사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한국 연구자와 조선족 연구자들의 상호보완적인 연구가 기대되는 부분이 바로 이곳이다.

Ⅲ. 조선족 소설 연구에 대한 반성과 전망

1. 대상 작가 및 작품의 다양화

앞의 연구사 검토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현재까지의 조선족 소설 연구는 몇몇 작가의 대표작 몇 작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선행 연구에 기대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학계의 풍토이기도 하고 또 연구 결과의 집적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연구 풍토는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연변작가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소설가가 100명이 넘는 점을 생각하면 작고작가 두 명과 생존 작가 한 명에 치중하는 연구 태도는 연구대상이 되는 이들 작품이 아무리 민족 해방의 역사와 조선족의 현실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 하더라도 극복되어야만 될 연구 태도이다. 최근 소개의 차원이기는 하나 김학철, 리근전, 허련순 이외의 조선족 작가들에 대한 소개와 연구가 발표되기 시작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

이다. 아래 이들 연구를 간단히 소개한다.

한명환은 「<산골녀성들>의 구성과 문체」(『한중인문학연구』 19, 2006. 12.)에서 조선족 원로작가 김용식의 소설 <산골녀성들>이 지닌 형식적 특성을 다루면서 조선족 소설에 나타난 설화조의 문체적 특성을 구명한다. 또 박지혜는 「윤림호 소설의 민족의식 표출양상과 의미」(『현대소설연구』 33, 2007.3.)에서 윤림호 소설의 주제적 특성을 살펴 자가의 특유한 민족 개념과 민족의식을 정리하여 조선족 소설 연구의 대상을 넓혔다. 차희정은 「해방기 『연변일보』 소재 재증 조선인 소설 연구」(『한중인문학연구』 20, 2007.4.)를 통해 조선족 소설의 형성기인 1946-8년 사이의 재증 조선인 소설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그 특징을 살펴 조선족 소설의 형성 과정과 함께 조선족 소설 연구에서 비어있던 부분을 채워주는 고무적인 결과를 보여 주었다. 그리고 송현호는 「최홍일의 <눈물 젖은 두만강>의 서사적 특징」(『현대소설연구』 39, 2008.12.)에서 조선족 중견 작가 최홍일의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자가가 다루는 조선인의 간도 지역의 정착 과정과 함께 설화적인 서술과 근대적 서술의 혼재 양상을 밝힌 바 있다. 최병우는 「한중수교가 중국조선족 소설에 미친 영향 연구」에서 리혜선, 우광훈, 윤림호, 허련순 등 조선족 중견 작가들을 대상으로 조선족의 소설이 한중수교를 전후하여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살펴 연구 대상을 넓힌 바 있다.

이와 같이 조선족 소설 연구에 있어 대상 작가의 폭은 점차 넓어지고 있다. 특히 앞으로 기왕에 언급된 리혜선, 윤림호, 우광훈, 최홍일 등은 물론 최국철, 박옥남, 강호원, 김남현, 박초란, 장학규, 김춘택, 김혁, 리여천, 조성희, 리선희 등 연변 지역이나 동북의 산재 지역은 물론 관내로 이동하여 활동하는 많은 조선족 작가의 작품에 대해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상 작가의 폭을 넓히는 작업을 통하여 조선족 소설의 전체적인 상을 살필 수 있을 것이며 한민족 문학을 논의하는 데 있어 보다 설득력 있게 조선족 문학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2. 민족정체성 및 디아스포라의 시각에서의 탈피

조선족 소설에 대한 연구는 크게 항일 역사의 재구, 조선족 민족 정체성, 디아스포라 등 세 가지 방면에서 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세대에 이민족의 땅으로 쫓겨나다시피 건너와 치절한 항일 투쟁의 역사와 일제 패망 이후의 중국 혁명이라는 내란의 와중에 큰 공을 세우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경제적으로 급성장한 모국 한국을 알게 된 조선족들의 문학에서 이러한 특성들을 살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중국 조선족의 소설에서 이러한 사회 역사적 조건에서 배태된 주제들을 지속적으로 재해석해내는 일은 결국 조선족 소설을 점차 흥미 없는 연구 대상으로 만들어 버릴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중국이라는 역사적 조건 속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기는 하지만 조선족들 역시 희로애락을 경험하고 이웃과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인간이다. 그들의 문학에서 피어린 투쟁의 역사와 한민족으로서의 조건만을 읽어내는 것은 조선족 문학을 문학으로 읽지 않는 우를 범하는 일이다. 따라서 조선족 문학에 나타나는 다양한 주제적 양상들을 살피고, 그것이 한국인과 어떻게 다르며 또 같은지를 살피고, 나아가 유사하거나 차이가 나는 주제나 정서를 형상화하는 방식에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등이 살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한민족 문학이라는 커다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최근 들어 발표된 송현호의 「중국 조선족 이주민 3세들의 삶의 풍경」과 이광재와 지해연의 「조선족 농촌여성의 실존적 특징」 등은 조선족 소설의 새로운 읽기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조선족의 삶의 모습이나 실존적 조건의 문제를 다룬 이들 논문의 의의를 인정하면서 같은 허련순의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녀의 최초 작품집인 <사내 많은 남자>(동아일보사, 1991.)를 다루었으면 좀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또 우광훈의 <메리의 죽음>(연변인민출판사, 1989.)에 나타나는 강한 남성성이나 장편소설 <훈

적>(연변인민출판사, 2005.)에 나타나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전국에 산재한 조선족들의 삶의 다양한 조건이나 리혜선의 <야경으로 가는 너자>(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97.)에 나타난 여성의 섬세한 내면 등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면 조선족 소설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3. 중국 현대사와 문단사와 관련한 조선족 소설 접근

당연한 말이지만 조선족 소설을 한국과의 연관에서만 살피는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조선족 소설은 한민족 문학의 하위 개념이었지만 그보다 먼저 중국 소수민족의 문학이다. 중국 소수민족 중에서 모국을 가진 민족이 조선족밖에 없다는 점에서 조선족 소설은 모국과의 관련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선족 소설은 중국의 현대사와 중국의 당대문학사에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조선족 소설에 나타난 이중정체성이나 디아스포라의 문제를 해명하는 것이 소중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문학을 중국이라는 역사적 사회적 자장 속에 놓고 보는 것은 조선족 소설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최은수는 「중국조선족 반성소설 연구」(『현대소설연구』 34, 2007.6.)에서 문화대혁명 이후 중국 문단을 휩쓸고 간 상흔문학이나 반성문학이라는 문학사적 사실을 염두에 두고 조선족 소설이 지닌 반성소설적 특면을 살펴 중국당대문학사와의 관련 하에 조선족 소설을 살핀 바 있다. 또 김형규도 「중국 조선족 소설과 소수민족주의의 확립」(『현대소설연구』 40, 2009.4.)에서 반우파 투쟁과 문화대혁명이 진행되던 1960-70년대에 발표된 조선족 소설을 통해 이 시기에 조선족 소설의 중국화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조선족이 지니고 있던 민족적 특성이 중국 소수민족으로서의 성격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하여 중국 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조선족 소설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선명히 보여주었다. 최병

위의 「한중수교가 중국조선족 소설에 미친 영향 연구」는 한중수교라는 중국의 현대사가 조선족 소설에 미친 영향을 살폈다는 점에서 위의 두 논문과 동일한 의의를 지닌다.

조선족은 중국 공민으로서 중국의 사회 문화적 정책에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왔다. 공산주의 사회의 희망찬 미래에 들떠 있기도 하였고, 반우파투쟁기에 소수민족으로서 많은 고난을 겪었으며, 민족적 성향이 종파주의로 치부되어 박해를 받기도 하였고, 문화대혁명을 통해 이념의 과잉에 따른 엄청난 혼란도 경험하였다. 그들을 쓸고 지나간 역사의 고난이 너무나 엄청났기에 아직도 조선족들은 정치적 문제에 대해 민감하고 소심하게 반응한다. 그들의 문학에서 이러한 중국 당대사의 흔적을 읽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중국의 당대문학사와 관련지으며 살펴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접근은 조선족 연구자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²⁾

4. 조선족 소설에 대한 형식미학적 접근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조선족 소설에 대한 형식미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당대문학사 속에서 성장한 조선족 소설은 문학의 형식보다는 주제적인 측면에 치중하여 발전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모택동의 연안문예담화 이후 중국의 문학은 당의 정책에 복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에서의 문학연구가 갖는 일방성은 조선족 연구자들에게서도 반복되어 나타나고 이는 한국의 연구자들에게도 공통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조선족 소설이 갖는 형식미학적 특성과 장르의식 등을 살피는 것은 조선족 소설을 지속적으로 문학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최근

2) 한국인이 II-4에서 소개한 이광일, 오상순, 이해영 등과 같이 중국현대사와 함께 개인적 체험이나 정서와 관련시켜 조선족 소설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임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논의가 진행되는 바와 같이 향후 한민족 문학을 말하기 위해서는 한민족의 공통된 정서를 찾아내고 그것이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말하여야 하는 바 해당 문학 작품에 대한 형식미학적 접근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겠다.

조선족 소설에 대한 형식미학적 연구는 한 작품을 대상으로 한 한계는 있으나 이미 한명환이 「<산골녀성들>의 구성과 문체」에서 시도한 바 있다. 또 최병우는 「김학철 소설에 나타난 체험의 형상화 방식 연구」(『한국문학논총』 56, 2010.12.)에서 김학철이 체험을 작품화한 소설과 전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술 방식 상의 차이를 살펴 그의 장르의식을 해명한 바 있다.

조선족 소설은 중국의 문예정책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 한국현대소설에 비해 형식미학적으로 매우 단순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또 그들 작품의 상당수는 형식미학적으로 수준이 떨어지거나 소설적인 재미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의 작품이 그렇다고 하여 조선족 소설 연구에서 형식미학적 방법을 제외해 버릴 수는 없다. 조선족 소설에 대한 역사주의적, 주제 중심적 연구 일변도에서 벗어나 그 연구 방법을 다양화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한민족 문학을 논의하면서 그 주제적 형식적 특성을 구분하고 정리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필수적인 작업이기도 하다.

IV. 마무리

한국과 중국이 수교협정을 맺은 지 20년이 되었고, 조선족의 존재가 알려지고 그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된 것도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다. 조선족의 존재가 처음 알려지고 그들의 문학이 처음 소개되자 많은 독자와 연구자들의 관심이 적지 않았다. 조선족 문학에 대한 연구도 한국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 있게 진행된 바 있다.

본고는 한중수교 이후 한국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조선족 소설에 대한 연구를 사적으로 검토하고 그 성과와 한계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검토해 보았다. 이 작업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조선족 소설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고 다변화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본고는 한국 학자들에 의한 조선족 소설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조선족 연구자들에 의한 연구 성과가 다소 소홀히 다루어진 한계를 갖는다. 본고에서 조선족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한국 학자의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논문에 한정하고 한국에서 발간된 저서와 김학철 연구회에서 편한 김학철 연구총서만 다룬 것은 조선족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다룰 경우 중국 내에서 발표된 많은 글들을 검토해야 하는 어려움을 고려한 결과이다. 이 논문의 이러한 한계는 추후 중국 내의 잡지와 논문집을 검토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옥, 《김학철 문학 연구》(국학자료원, 2010)
-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연변 조선족 문학 특집>(『한국학연구』 3집, 1991.), 87-232면.
- 고명철, 「혁명성장소설의 공간, 민중적 국제연대 그리고 반식민주의」(『반교어문연구』 22집, 2007.2.), 229-253면.
- 고인환, 「중국 조선족 디아스포라 문학의 한 가능성」(『한국문학논총』 55, 2010.8.), 341-363면.
- 권철·조성일, 《중국조선족문학사》(연변인민출판사, 1990.)
- 김관용·김호웅, 《김학철 문학과 의 대화》(연변인민출판사, 2009.)
- 김윤식, 「빨치산 문학의 기원」(『실천문학』, 1988.12.), 391-424면.
- 김중하, 「중국 사회주의 문화정책이 조선족 소설창작 방법에 미친 영향」(『한국문학논총』 20, 1997.6.), 97-116면.
- 김중하, 「중국 조선족 소설사 기술태도에 나타난 소설의 기능 문제」(『한국문학논총』 16, 1995.12.), 105-120면.
- 김학철문학연구회, 《김학철론·젊은 세대의 시각》(연변인민출판사, 2006.)
- 김학철문학연구회, 《소장과평론가와 김학철의 만남》(연변인민출판사, 2009.)
- 김학철문학연구회, 《조선의용군 최후의 분대장 김학철 2》(연변인민출판사, 2005.)
- 김학철문학연구회, 《조선의용군 최후의 분대장 김학철 4》(연변인민출판사, 2007.)
- 김학철문학연구회, 《조선의용군 최후의 분대장 김학철》(연변인민출판사, 2002.)
- 김형규, 「중국 조선족 소설과 소수민족주의의 확립」(『현대소설연구』 40,

- 2009.4.), 81-101면.
- 박경주·손창주, 「1990년대 이후 조선족 소설에 반영된 민족정체성 연구」(『한중인문학연구』 31, 2010.12.), 47-73면.
- 박지혜, 「윤림호 소설의 민족의식 표출양상과 의미」(『현대소설연구』 33, 2007.3.), 241-263면.
- 박충록, 《김학철 문학 연구》(이회, 1996.)
- 송현호, 「김학철의 <20세기의 신화> 연구」(『한중인문학연구』 21, 2007.8.), 5-24면.
- 송현호, 「김학철의 <격정시대>에 나타난 탈식민주의적 성격 연구」(『한중인문학연구』 18, 2006.8.), 5-31면.
- 송현호, 「김학철의 <해란강아 말하라> 연구」(『한중인문학연구』 20, 2007.4.), 25-48면.
- 송현호, 「중국 조선족 이주민 3세들의 삶의 풍경」(『현대소설연구』46, 2011.4.), 135-158면.
- 송현호, 「최홍일의 <눈물 젖은 두만강>의 서사적 특징」(『현대소설연구』 39, 2008.12.), 245-262면.
- 송현호·최병우 외, 《중국 조선족 문학의 탈식민주의 연구 I》(국학자료원, 2008.)
- 송현호·최병우 외, 《중국 조선족 문학의 탈식민주의 연구 II》(국학자료원, 2009.)
- 오상순, 「20세기 말 조선족 소설에 나타난 비극성」(『현대문학의 연구』 24, 2004. 11.), 155-191면.
- 오상순, 「이중정체성의 갈등과 문학적 형상화」(『현대문학의 연구』 29, 2006.7.), 39-69면.
- 오상순, 《개혁개방과 중국조선족 소설문학》(월인, 2001.)
- 오양호·임향란, 「중국조선족소설에 나타난 고향의식 - 리근전의 <고난의 년대>를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1, 2004.10.), 125-

152면.

- 우한용, 「역사적 주체로서의 인식과 실천, - 이근전의 <고난의 년대>」
(『동서문학』, 1990.1.), 198-223면.
- 이광일, 《해방 후 조선족 소설문학 연구》(경인문화사, 2003.)
- 이광재·지혜연, 「조선족 농촌여성의 실존적 특징」(『한중인문학연구』
32, 2011.4.), 1-19면.
- 이상갑, 「역사 증언에의 욕구와 형상화 수준」(고려대 한국학연구소, 『한
국학연구』 10집, 1998.12.), 147-175면.
- 이종순, 《중국조선족 문학과 문학교육》(신성출판사, 2005.)
- 이해영, 《중국조선족 사회사와 장편소설》(역락, 2006.)
- 이해영, 《청년 김학철과 그의 시대》(역락, 2006.)
- 임향란, 《조선족문학에 나타난 삶의 현장과 의식 변화》(한국학술정보,
2008.)
- 정덕준, 「개혁개방 시기 재중 조선족 소설 연구」(『한국언어문학』 51,
2003.12.), 655-679면.
- 정지인, 「당대 조선족 소설에 나타난 한민족 의식」(『중국현대문학연구』
13, 2004.12.), 1-26면.
- 차성연, 「중국조선족 문학에 재현된 ‘한국’과 ‘디아스포라’ 정체성」(『한중
인문학연구』 31, 2010.12.), 75-98면.
- 차희정, 「해방기 『연변일보』 소재 재중 조선인 소설 연구」(『한중인문학
연구』 20, 2007.4.), 117-143면.
- 최병우, 「김학철 소설에 나타난 체험의 형상화 방식 연구」(『한국문학논
총』 56, 2010.12.), 365-391면.
- 최병우, 「리근전소설연구」(『현대소설연구』 29, 2006.3.), 247-273면.
- 최병우, 「우광훈 초기 소설의 주제 특성 연구」(『한중인문학연구』 22,
2007.12.), 371-389면.
- 최병우, 「조선족 이차 이산과 그 소설적 형상화 연구」(『한중인문학연구』

- 29, 2010.4.), 89-110면.
- 최병우, 「조선족 소설에 나타난 민족의 문제」(『현대소설연구』 42, 2009.12.), 501-536면.
- 최병우, 「조선족 소설에 나타난 민족해방운동에 관한 두 시각」(『한중인문학연구』 32, 2011.4.), 21-41면.
- 최병우, 「중국조선족 소설에 나타난 한국의 이미지 연구」(『한중인문학연구』 30, 2010.8.), 29-50면.
- 최병우, 「한중수교가 중국조선족 소설에 미친 영향 연구」(『국어국문학』 151, 2009.5.), 463-486면.
- 최병우, 《리근전 소설 연구》(푸른사상, 2007.)
- 최은수, 「중국조선족 반성소설 연구」(『현대소설연구』 34, 2007.6.), 255-273면.
- 한명환, 「〈산골녀성들〉의 구성과 문체」(『한중인문학연구』 19, 2006.12.), 145-166면.
- 한홍화, 「〈바람꽃〉을 통해 본 조선족 정체성의 변이 양상」(『한국민족문화』 38, 2010.11.), 193-216면.

<Abstract>

The Direction of Research on Novels Written by Joseonjok Writers

Choi, Byeong-Woo*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make a historical review of previous studies on novels written by Joseonjok writers conducted by Korean schol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formal diplomatic rel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o discuss their accomplishments and limitations,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Studies on novels written by Joseonjok writers have accumulated a large volume of outcomes for about 20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his study grouped previous studies into those introducing novels written by Joseonjok writers at the early stage, those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novels written by Joseonjok writers, and those on individual Joseonjok writers, and examined the achievements of these studies. In addition, we introduced writings by Joseonjok researchers.

Based on the results, we reflected on previous studies on novels written by Joseonjok writers and forecasted future studies. While previous studies concentrated on a few writers, future research on novels written by Joseonjok writers needs to diversify writers and works to be studi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get away from the issue of national identity, which has been a major theme of previous

* Gangneung National University

studies, and to make research related to Chinese modern history and literature history. We als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formal aesthetic approaches. Based on the results and suggestions of this study, we expect the activation and diversification of studies on novels written by Joseonjok writers in the future.

Key Words : novels written by Joseonjok writers, establishment of formal diplomatic rel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dual identity, diaspora, Chinese literature history, formal aesthetics

- 논문접수 : 2012년 3월 15일
- 심사완료 : 2012년 3월 31일
- 게재확정 : 2012년 4월 10일